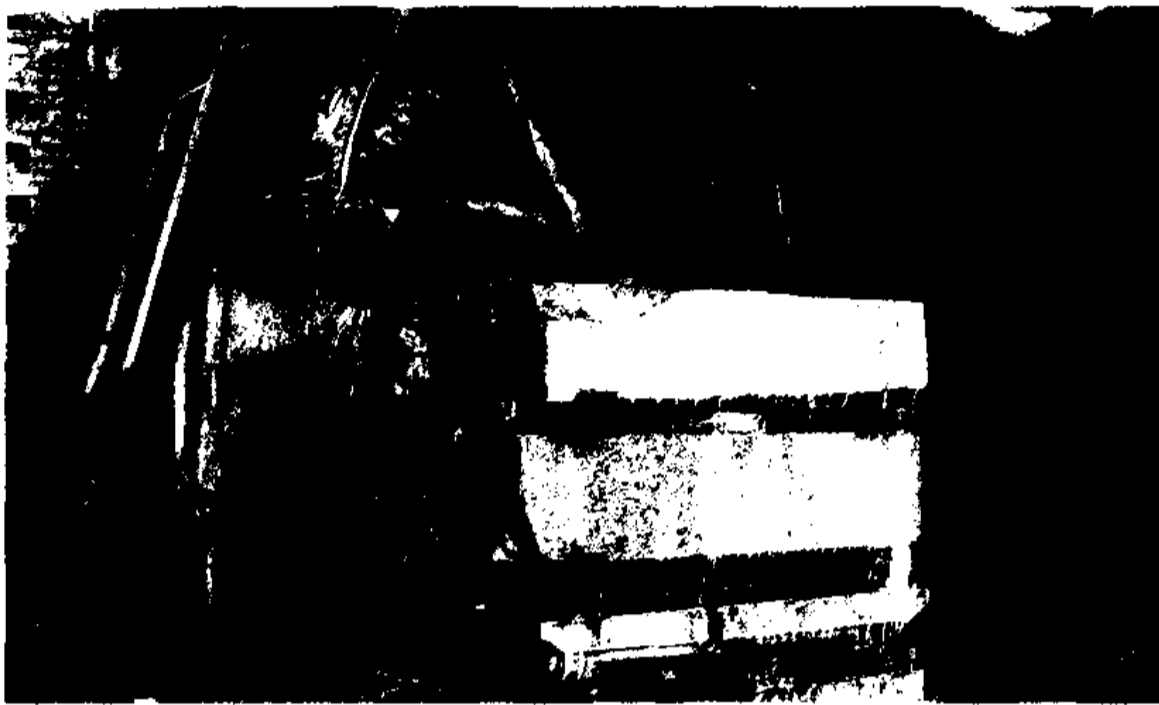


## 미국건설호황 석재업계 “파란불”



### 2003년 세계 석재산업 현황과 전망

위기의 세계경제는 9.11 쇼크 이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인터내셔널 마르미에 카라라(International Marble Carrara)>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석재산업 또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2002년 하면 역시 떠오르는 말은 전반적인 침체라는 단어이다. 시작부터 그랬다. 이는 9.11 쇼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9.11 쇼크는 연말쯤부터 일기 시작할 것으로 예견된 경기회복세를 꺾어 놓았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경제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상황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나쁜 상황을 회색시기를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경제는 확장일로로 걸어왔다. 바로 이같은 서구경제의 힘이 9.11 쇼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따라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국면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 9.11 쇼크는 2차대전 이후에 맞은 하나의 드라마틱한 사건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지 않

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기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 한 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물론 아직 문제는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엔론(Enron) 사건의 여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증동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증동위기는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유가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에너지가의 상승에 따라 일회일비 하는 기업과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4/4 분기의 원자재가는 수요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에너지가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일쑤였다. 특히 유가와 분장지역인 증동은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미국의 경기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과 빌딩건설사업이었다. 여전히 미국은 서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빌딩건설부문, 특히 주택건설부문은 상승세이다. 따라서 석재 부문 역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져온 저성장상은 가시지 않고

는 슬럼프에 빠졌지만 석재산업은 채석, 가공분야 모두 양호했다. 채석량도 늘었고 특히 전체소비도 증가했다. 물론 지역적 편차도 있긴 했다. 완만하거나 미묘한 흐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석재산업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추세는 2002년에도 계속 되었다.

따라서 석재산업분야에서 광폭하게 성장한 강자도 등장하고 있다. 또 수년만에 세계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한 사람도 생겨났다. 또 몇몇은 채석분야에서 석판이나 타일 등 마감재의 생산업자로 변신,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석재를 수입, 재가공 수출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도 했다.

### 중국 마케팅 분야 활기

중국에 석재산업의 주역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중국이 될 이상 석재산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은 석재산업을 보는 독특한 시각으로 경쟁자격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석재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제조능력은 강하다. 석재산업에서 채석능력도 지난 10년 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중국이 석재분야를 맞이하여 새로운 눈을 뜨고 있다. 채석 이외에 마케팅과 마감재 분야에서 리더가 되었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인상적인 이런 변화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없다. 수 년 전부터 중국은 유럽, 특히 독일에 화장암(석판 포함)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화장암은 중국산 뿐 만이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이는 중국이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등 화장암 원자재 생산국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 수출, 마케팅 영역을 분명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2001-2002 석재산업부문

일단 2001년와 석재산업은 긍정적인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9.11 쇼크로 4/4분기 국제무역거래

### 청년시

## “석재인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석재협회 회장 한동주

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1세기 첫 대통령이 취임할 2003년은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출발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석재업계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도 항상 기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전국의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사)한국석재협회 회장으로 새로 임명된 한동주입니다. 오늘도 석재업계에서 활동하며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석재산업이 점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상황에 부딪친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IMF이후의 인플레이션 없는 건반적인 경제침체, 얼어붙은 건설경기,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 게다가 저가의 중국수입석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해 우리 석재업체의 어려움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인간의 사랑을 받아온 돌의 그 무궁한 생

IMF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도 풀고 나온 우리들입니다. 석재산업은 채석 가공 건설 공예들 각각의 분야가 석재문화라는 하나의 결실을 창조해 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자 (사)한국석재협회가 설립되었고, 하나로 결집된 석재인들의 모습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우리 협회의 소식지 '석재인'을 창간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석재인'은 석재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석재인'과 우리 협회는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돌'이라는 자원이 적체되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돌'의 문화를 우리 후세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여러분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령같이 우리 석재인들의 노력과 협력만 있다면, 이러한 위기 또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에, 석재라는 보물을 찾아내기까지의 어려움도 이겨낸 우리들입니다.

### 【지면안내】

편집취사	2
기획취사	3
특집	4
채석·가공	5
분회지	6
문화가소식	7
특집	8-9
커스	10
정보	11

DAELIM CORPORATION

##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VALUE CREATOR

‘석재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사)한국석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